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때>, <역사>, <시간> 등을 생명시하여라.
2. <때와 역사와 시간>은 ‘생명’ 과 같이 동행한다. 고로 <때>를 안 지키면 죽는다.
3. <때>란, ‘기회’ 요, ‘복’ 이다.
4. <때>란, ‘분별하는 기간’ 이며, ‘기회가 존재하는 기간’ 이다.
5. 지난날 겪은 것을 생각하여라. 그래야 더 은혜가 된다. 저마다 겪은 것을 볼 때 “내가 때를 안 지켜서 많은 것을 실수했구나. 얻지 못했구나.” 할 것이다. <때>를 못 지켜서 얻지 못한 것이 많다. <때를 지킨 사람>만 얻는다.
6. <때>에 얻는다. <때 지나고 얻는 사람>은 없다.
7. <때> 지나면, 천 년을 찾아도 없다.
8. <때> 지나면, 끝난 것이다. 고로 찾을 수도 없다.
9. <때> 지나면, ‘주님’ 을 찾아도 없다.
10. <예수님 때>도 ‘때’ 를 놓치니 그냥 지나가고 끝났다. <구시대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주>를 못 찾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11. <때>가 지나기 전에 ‘때’를 잡고 ‘주’를 쫓아라.

12. <때> 지나면 안 된다.

13. <때>와 <존재의 현실>이다. <때>에 실제 존재하고 있다. 고로 <때>가 오면 가서 잡아라. <때>는 행해서 잡는 것이다.

14. <때>에 잡아라. <때>에 잡고 행하여라. <때> 지나면 찾을 것도 없다.

15. <때>에 찾고 행하여라.

16. 사람들은 <때>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다. <때>는 계속 존재하지를 못한다.

17. <하나님의 때>는 지구가 돌듯 간다. 고로 지구가 돌아서 자기 앞에 왔을 때, 그때 올라타야 된다. 지나가면 올라탈 수 없는 것이다. 가령 < 시내버스 >도 자기 앞에 왔을 때 올라타야지, 버스가 이미 출발해서 달리는데 탈 수 없는 것이다. <계절의 때>도, <자기의 때>도 지구가 돌듯이 가니, ‘제때, 제 차례’에 행하여라.

18. <때>를 맞는 데 있어서 절대 ‘예비’해야 된다. 예비하지 않으면 못 맞는다.

19. <때 지키기>다. <초>를 다투면서 뛰어야 ‘때’를 지킬 수 있다.

20. <때>를 지키려면 예비해라.

21. <때>를 지켜서 ‘때’와 같이 동행하여라. <때>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주’다.

22. 선생이 시대 십자가를 질 때 한번은 성령님께서 새벽에 나를 깨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빛을 받아라.” 하셨다. 깨서 보니 새벽 1시였다. 조금만 눈을 붙이고 바로 일어나겠다고 하고 눈을 붙였는데 다시 일어나 보니, 2시였다. 그때 성령님을 부르니, 대답이 없으셨다. 그러고서 꿈에 보니 좋은 ‘세단 차’가 없어지고 ‘일반 차’로 바뀌어 있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눈을 잠깐 붙였다 일어났는데 3시였다. 그때 보니 ‘일반 차’가 없어지고 ‘자전거’로 바뀌어 있었다. <자전거>는 아무리 타고 가도, ‘차’를 따라갈 수 없다. 그 이후로 성령님이 깨우시면 12시 30분에 벌떡 일어나서 기도를 했더니, 말씀을 계속 주셨다. 그때 한 번에 120개씩 잠언도 쓰고, 설교도 썼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약속 시간>을 지켜라.

23. 자기 행위대로 꿈에 좋은 ‘세단 차’가 보이기도 하고, ‘일반 차’가 보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리어카’로 보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덤프트럭’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 어느 때는 걸어가기

도 한다. 자기 행위대로 보여 준 것이다.

24. <때>와 <실상>이다.

25. <때>와 <존재하는 것>이다. <때>에 맞춰 ‘존재하는 것’ 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때>를 보면, 버섯이 날 때 버섯이 나지, 때가 아닐 때는 버섯이 안 난다. <나무>도 때가 지나면 물을 빨아들이지 않는다. 그때는 거름을 해도 안 된다. <때>에 맞춰 해야 된다.

26. <일>도 제때 해야 해진다. <과일>도 제때 먹어야 된다. 때 지나서 먹으면 맛이 변해 있다. <음식>도 뜨거울 때 제때 먹어야 맛있다.

27. <말씀>도 뜨끈뜨끈할 때가 맛있지, ‘식은 말씀’ 은 맛이 없다. <말씀>이 뜨거울 때는 ‘두 번’ 있다. <말씀을 들을 때> 뜨겁고, <말씀을 행할 때> 뜨겁다.

28. 제때 해야 해지고, 제때 해야 좋다.

29. 하나님은 ‘때’ 이시다. 하나님과 일체 되어야 ‘때’ 를 지킨다. 일체 되지 않으면, ‘때’ 를 못 지킨다.

30. 하나님은 ‘시간의 때’ 이시다.

31. 하나님은 늘 선생에게 말씀하시기를, “때 지나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선생이 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해야 된다. 때 지난 다음에 하면, 아무리 항우장사라도 안 된다. 이미 <때>가 지나서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하라는 것이다. 시험에 들었어도, 이해가 안 돼도 해라. 해 놓고 따져 보면, ‘한 것’ 이 잘했다는 것이다.

32. 저마다 ‘때’ 를 기다린다. <때>는 반드시 오니, 행하여라.

33. 사람들은 ‘때’ 를 기다리나, 문제는 ‘때’ 가 와도 모른다는 것이다. <때>는 ‘자기 생각, 자기 관념, 자기 주관’ 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일체 되어 ‘신’ 이 되어 행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와 같이 행한다. 그러려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 발달, 영적 발달’ 을 시켜야 된다.

34. <때>가 오면, 제때 행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기다.

35. <때>를 기다렸으면, 모든 것을 제해 버리고 ‘때’ 만 잡고 원하던 것을 행하여라.

36. <존재의 때>는 ‘아는 자’ 만 안다.

37.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때’ 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를 ‘하나님’ 으로 알고 지켜야 된다. <때>를 알아라. <자기 때>도 모르면 안 된다. <자기가 쓰이는 때>가 있다.

38. 제때를 모르면, 제때 행하지를 못한다.

39. <때>를 지켜야 ‘때에 맞는 일’을 얻고 누린다.
40. <때>를 못 지키면 ‘자기 때’에 매여 있게 된다.
41. <때>를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하니, 하나님은 재촉하고 몰아가고 잡아당기면서 ‘때’를 지켜 행하게 하셨다.
42. <때>가 귀하다.
43. 그 때에 <할 일>을 하면서 ‘때’를 지켜라.
44.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고 누리며 살아도, 그때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때>를 지키면서 가야 된다.
45. <시간>을 지키는 것은 쉽다. 그때마다 <할 일>을 하면서 ‘때’를 지켜야 된다. <할 일>을 안 하면서 ‘시간’만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가령 <새벽예배>도 ‘시간’은 지켰는데 ‘할 일’을 안 하면 안 된다. <말씀>을 깊이 듣고, 귀히 듣는 것이 ‘할 일’을 하는 것이며 ‘때를 지키는 것’이다.
46. <때>는 ‘상대’다. <자기>는 ‘남자’이고, <때>는 ‘여자’다. 혹은 <자기>는 ‘여자’이고, <때>는 ‘남자’다. 이러면서 <때>를 사랑하고 같이 동행해야 된다.
47.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만사에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리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취할 때가 있다.” 하셨다. 이같이 <때>라는 것은 엄격히 있다.
고로 <때>를 보면서 ‘이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때>에 맞춰 해야 된다. <할 일>을 하면서 극적으로 뛰어와
‘때의 의미’를 더욱 알게 되고, ‘때에 대한 은혜’를 받게
된다.

48. <때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때에 해당되지 않은 일>은 하지
말아라.

◎ 내일도 또 말씀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